

전주시, 사람중심 인권 프로젝트 추진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 인권센터 추진방향 논의 · 결정... 인권도시 전주 기반 구축

전주시가 모든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올해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전주시 인권센터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사회적 약자 등 모든 시민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틀 마련을 위해 사람중심 인권도시를 향한 인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시는 △인권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실행을 위한 전주시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전주시 인권센터 추진방향 논의·결정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아카데미 운영과 체계적인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관련 모니터링 등으로 시민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시스템 구축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인권공동사업 추진 등을 통해 인권도시 전주의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인권담당부서인 인권팀과 여성, 아동, 장애인 등 각 분야

별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전주시 인권위원회와 함께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또한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인권취약계층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인권관련 주요사항 등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고, 전주시 행정 곳곳에서 권위적이고 분산적으로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시 산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이나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실시로 인권감수성 및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자체 인권의식 실태 조사와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재능기부를 통해 아동, 청소년, 시민 등으로 확대하여 직접 찾아가는 시민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

획이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찾아가는 시민 인권교육은 강의, 토의, 체험형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인권도시로 나아가는데 마중물이 될 지역의 인권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복지시설 등 점검시 인권팀이 동행해 인권 침해요소 등을 점검하고, 구청 통합사례관리사 인권교육으로 복지수급대상자에 대한 인권 홍보활동가로 활용하는 등 인권현안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보호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출범 예정인 전국 인권도시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전국 27개 지방정부와 공공으로 인권제도화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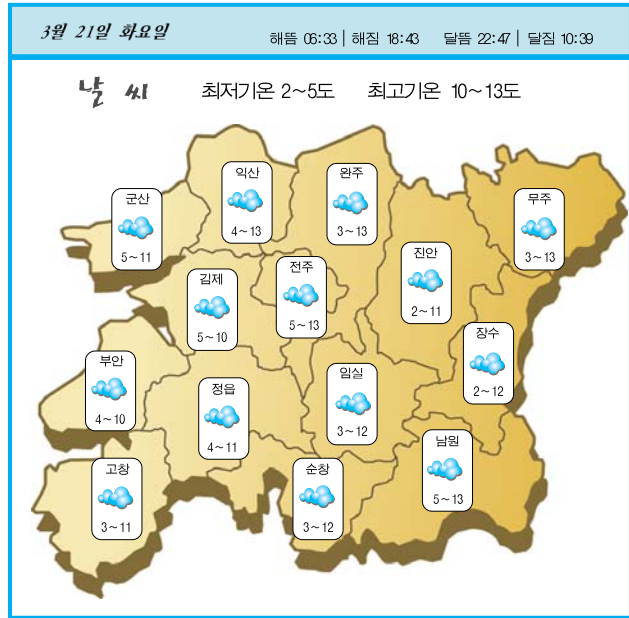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6월까지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인권

및 인권도시의 국내·외 동향, 제도와 이슈 분석 △주요 지수별 전주시 인권현황 파악 및 인권실태(인권위시) 조사 △인권교육 도입·운영 등 인권에 관한 공감대 확산 방안 △인권행정 추진사례조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행정적 인권조사 매뉴얼(로드맵) 수립 △인권정책의 비전과 추진목표, 추진과제 등이다.

시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5개년(2017~2021) 동안 추진할 전주시의 인권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며, 분야별 중점 및 세부실천과제를 발굴해 지속가능한 전주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철수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인권은 행정 체계 내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시민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 전반에서 주민과 밀착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발달장애 학생 '느루걸음' 상상블 작은 연주회 개최

전북도교육청은 발달장애 학생이 그동안 갖고 있던 연주 실력을 선보이는 '느루걸음 상상블 작은 연주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폐장애 연주자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는 21일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1층 북카페 징검다리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는 올해 김제여고를 졸업한 서주희 학생의 바이올린 독주와 비장애인 친인척 서민희씨(플루트) 등 느루걸음 상상블 단원 5명이 함께 한다. 이 자리에서는 버터플라이 왈츠, 천개의 비단이 되어 등 총 7곡이 연주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지역 발달장애 연주자들의 연주 실력을 선보이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이번 연주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이철수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인권은 행정 체계 내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시민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 전반에서 주민과 밀착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민근기자

함열여고, 미국고교생 초청 글로벌리더 역량 키운다

7년째 미국 PCS 고교와 조인트캠프... 양국 문화 등 체험

유네스코 협력학교인 익산 함열여자고등학교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4일 일정의 미국 청소년 초청 조인트 캠프를 개최한다.

올해로 시행 7년차를 맞는 이 프로그램은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 피오리나 크리스찬 스쿨(이하 미국 PCS 고등학교)학생들과 함열여고 글로벌 여성인재 학생들이 함께 한국문화체험 및 교류의 장을 만들어 가는 행사다.

함열여고 조인트 캠프는 전주한옥마을 투어, 탈춤체험, 전통혼례체험, 풍물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PCS 고교생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함열여고 학생들이 각 프로그램의 내용을 영어로 소개하며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특히 미국 아이버리그 진학을 목표로 하는 PCS 학생들과 동고동락할 기회를 함으로써 세계 시민으로서의 글로벌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조인트 캠프에 참여한 권민정 학생(2학년)은 지난 겨울방학 PCS 고등학교의 초청학생 자격으로 방문했을 당시 '한미 고등학교 시스템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표하여 호응을 받았다.



유네스코 협력학교인 익산 함열여자고등학교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4일 일정의 미국 청소년 초청 조인트 캠프를 개최한다.

황민 영어교사는 "4일동안 학생들이 문화교류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경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 학생들이 많이 준비한 만큼 얻어갈 수 있는 캠프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 학생들의 모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기 교장은 "조인트 캠프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기르고 또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 이를 통해 함열여고 학생들이 향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지역 및 글로벌 사회에 공헌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해은기자

도내 대학 예비교사대상 혁신교육 아카데미 운영

전북도교육청이 전북대·전주대·원광대 등 도내 사범대학 및 비사범대학 예비교사들과 아카데미를 열고 전북 혁신교육을 전파한다.

도내 대학 예비교사들의 혁신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북 혁신교육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3년째 예비교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20일부터 전북대 사범대학 재학생을 시작으로 예비교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예비교사들에게 최근 교육의 흐름과 전북 혁신교육을 안내하고 교육과정·수업·학생평가 사례, 인성인문교육을 전파해 향후 이들이 교원으로 임용될 경우 학교 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올해는 교생실습을 나가는 예비교사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3월로 앞당겨져 운영된다.

정해은 기자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프로그램 어깨동무학교 운영

전북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어울림프로그램, 어깨동무학교 운영을 지원한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교과수업,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해 집단 상담, 역할극, 토론 게임 등 다양한 방

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생각과 대처, 공감능력 향상을 돕는 체험형 예방교육으로 도교육청은 98개 초중고교에 190만원을 지원한다.

총 227개 초중고교에는 1학교당 150만원~400만원을 지원해 친구사랑 동아리를 구성하고 또래 상담, 또래 조정, 캠페인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정해은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